



특새 후집회는 사랑의교회 비밀병기입니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후집회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권속들, 이 시간 버스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또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참여하는 모든 영가족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평생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 평생의 기도제목이 응답되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이 모멘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앓이 하던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해결되고, 가슴 뛰는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유를 모르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치유의 보혈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대사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한 달과 버금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번 특새 기간 성령의 보호막으로 온전히 진을 쳐 주셔서 어떤 어려움의 군도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교회 특새 이후 전 세계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미국의 혼란이 잠재워지게 하옵시고, 한국의 사회적 갈등이 치유되게 해주시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남예배당이 고품격 믿음의 성산으로 리모델링되어 청년 센터, 복음 센터, 청소년을 살리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피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센터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가 온전히 자리잡는 센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인치심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후집회 시간 올려드린 기도’

TODAY'S PRAYER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 1 글로벌 특새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말씀의 절대 권위를 지키며, 새 길을 만드시는 주님(Way Maker)께 기도할 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2 사랑의교회가 유니온신학교와 함께 유럽 재복음화를 위해 뿌린 씨앗이 유럽 1,000개의 교회 개척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고, 제자훈련 글로벌 파트너스 교회들과 손을 맞잡고 5대양 6대주를 섬기며 세계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 3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가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한국교회와 열방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대결구도가 아닌 사명을 따르는 미션구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영역주권을 선포하는 실재(實在)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요 15:13)

프랭클린 그레함 &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를 대표하여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사랑의교회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극심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길을 잃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더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한국을 방문한 저의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서로 사랑하라”(요 15:13)는 설교 일부분을 다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으신 불변하신 분이시며,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반드시 말한 것 때문에, 행위들 때문에, 생각들 때문에 기록하고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심판을 피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주로 고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치로(빌 4:6~7)

브라이언 박 목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질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24시간은 온갖 근심, 염려, 걱정, 초조,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며 완승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승리하는 자, 정복하는 자로 세워 주십니다(롬 8:37). 셋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면 죽어도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1) 항복하고, (2)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3) 회복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대하 7:14).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두려워했다면 항복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 기대하라.

대학7부 나고은 자매

작년 가을, 특별새벽부흥회 때에 우리 집 근처에는 셔틀버스가 없어 특새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각성전도집회가 몇 주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꼭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간절히 기도하고자 택시를 타고 특새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특새 기간에 “기도한 사람이 떠나도 기도는 영원하다”라는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동안 아버지를 위한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특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 용기 내어 복

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당연히 그해 대각성전도집회에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새 때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기도하던 중에 올해 갑자기 아버지가 성경을 한 번 읽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뿐만 아니라 출근할 때도 챙겨가 읽으시던 아버지는 얼마 전 성경 1독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 가신다는 것과 기도의 씨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특새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특새를 통해 부어주시길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새 길을 만드실 주님을 만나는 이번 특새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2008년, 남편이 특새버스 선탑자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부부가 함께 특새 전담의 특혜를 누리며 1년에 봄-가을 특새 보약을 꼬박꼬박 챙겨먹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올 봄에도 주실 은혜 기대하며 특새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특새 연기 소식이 들렸고, 매우 안타까웠지만 여름 토요 특별토비새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은 코로나 상황 중에도 가을 특새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특새 때마다 간절히 기도제목을 안고 기도했었는데, 이번 특새는 그냥 특새에 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비록 발등에 불 떨어진 다급한 삶의 기도제목이 여러 개 있고, 거리두기 인원제한으로 안아주심의 본당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새의 설렘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한 걸음에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크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보고 계시죠? ‘기억하라 기대하라, 새 길을 만드시는 주’ 앞에 더 큰 기쁨과 더욱 감사로 납작 엎드린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길을 만드시는 주

목양8팀 박은영B 집사



글로벌특새 On "특새는 사랑을 싣고"



익산예안교회
오주환 목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자리에 **예안교회가 동참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침에 빌리그래함 목사님 집회를 들으니 예전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안고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다시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뜨거워집니다. 금번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를 위해 사랑의교회 은 교우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는지요. 먼저는 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정현 담임목사님과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형제 된 예안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남은 시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의교회 성도여러분,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7번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저는 한국의 서울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사랑의교회의 특새를 떠올립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지구 반대편 아구아비바에서도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합심하여 동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새 길을 만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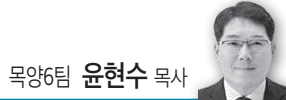
상파울로 아구아비바
고영규 목사

소감 On 신임교역자 "첫"특새



목양7팀 **임상규** 목사

사랑의교회에 부임하여 처음 마주한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감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품격 있는 '**영광의 대관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새로운 영적 모멘텀이 될 특새의 모든 시간에 기대하며, 기도하며 임하겠습니다.



목양6팀 **윤현수** 목사

특새에 참석하며 사랑의교회는 **잠들지 않는 교회**임을 느꼈습니다.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불성광이 되어주시고 순금등대에 기름을 붓듯**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목양8팀 **김은석** 목사



금번 **글로벌특새**에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영광스런 예배를 통해 은혜가 주어지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은상가은'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갈 줄 믿습니다.



청년부국 **김정민** 목사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를 통해 주신 첫 감동은 주차장에서였습니다. **꼭두새벽부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한국교회의 희망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국제제자훈련원 **윤주은** 목사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를 통해 글로벌적으로 연합한 교회들과 국내외의 강사진을 보며, **글로벌네트워킹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이번 특새가 하반기 모든 사역에 **상승촉매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양 **하상범** 목사



코로나 19로 인한 한계와 고난을 극복하고 **부흥과 비상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교회가 나아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 사랑(SaRang)

SaGA는 은혜를 나누는 영적 저수지입니다

- 지역교회(modality)의 강점과 선교단체(sodality)의 강점을 융합합니다.
-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상승 촉매제(catalyst)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글로벌(Global)

SaGA는 국내외 인재들을 모으는 영적 집현전입니다

- 모든 성도를 순장을 넘어 전 영역별 선교사로 양성합니다.
- 국내외 · 다음세대 인재들을 위한 든든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아카데미(Academy)

SaGA는 신학(theology)과 현장(praxis)의 조화를 통해 교회를 살립니다

- 한국교회가 현장에서 거두어 온 영적 추수의 열매들을 재생산합니다.
- 교회 현장의 학문적 규명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saga

사랑글로벌아카데미(SaGA) Global Dynamic School

글로벌 역량을 갖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21세기 영적 집현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Tel : 02-3495-1951, 1953

Email : saga@saga121.com / www.saga121.com



Union - SaRang Church: 10 Years of Gospel Partnership

유니온 신학교와 사랑의교회 동역 10주년 기념 보고서

복음의 서진 西進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유니온 신학교 총장 마이크 리브스

Union

유니온 신학교와 사랑의교회 동역 10년은 유럽의 영적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와 동역 10년으로 유럽의 영적 지형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신적 개입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럽 교회의 개척은 사실 몇몇 영웅적인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의 재개척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크게, 더 멀리 온 천하에 가득 차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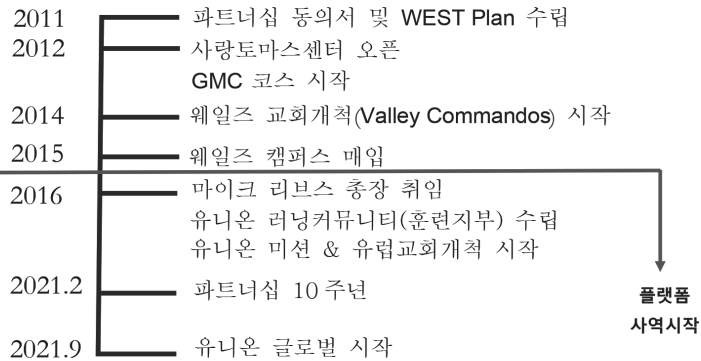
이 일은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복음의 서진을 위해서 기도와 헌신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의교회와 유니온 신학교를 통하여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빌 1:6).

2021년 2월은 사랑의교회와 유니온이 영가족으로서 복음의 파트너십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유니온이 유럽의 종교개혁과 교회의 성장을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편에 서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형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은 또 다른 면에서도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500년 전 1521년 4월 18일, 마틴 루터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부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오늘날, 특히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루터와 더불어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동역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우리와 동역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향후 10년간, 우리는 웨일즈와 유럽을 넘어 전세계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들을 양성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원을 공급하여,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일 - 이를 통해 우리는 전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The First Ten Years 사역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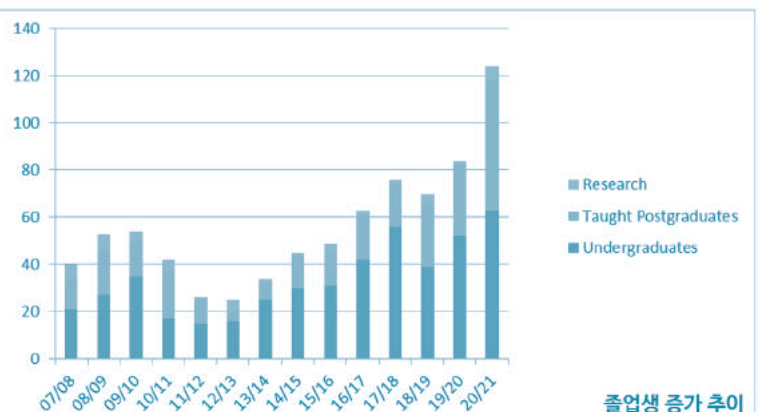


유니온 신학교는 웨일즈, 영국의 자경을 넘어 유럽, 미주에 27개의 훈련지부에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Union School of Theology 유니온 신학교

- 27 Learning Community(훈련 지부)
- 10개국에서 운영
- 졸업생들은 영국, 유럽 및 북미에 교회를 개척(plant) 및 재개척(revitalize)

■ 지난 10년간 학생수가 5배 증가하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Union Mission 유니온 선교

- 2013년 이래 20개국 120개 개척 교회에 10억원 이상 후원
- 유니온 졸업생의 25%가 졸업 직후 교회 개척 (2019)
- 웨일즈 유니온캠퍼스에 사랑제자훈련 선교센터 오픈 (2018)

20개국
120개 개척교회
10억원+ 후원



Union Global 유니온 글로벌 (향후 10년)

전세계적으로 복음의 필요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유니온을 6대주로 확장하여 리더들을 양성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10년을 맞아 2021년 9월, 유니온 글로벌이 시작됩니다.

- 글로벌 액세스 코스(Global Access Course)로 전세계에 리더십 교육 제공
(총괄자: Justin Schell, 前 로잔 Director of Executive Projects)
- 매년 50명의 교회 개척자 및 선교사 파송
- 전세계에 40개 러닝커뮤니티(유니온 훈련지부) 수립



50명
연간 개척자 코스



글로벌
액세스



40개
유니온허브

In Conclusion 맺음말

유니온과 사랑의교회의 지난 10년의 동역은 영국과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유니온 글로벌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웨일즈, 영국, 유럽을 넘어 5대양 6 대주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0명 교회 리더 양성

500개 교회 개척

5백만 크리스천에 자원 제공

알림 On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마이클 리브스 총장 (유니온신학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마6:9)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성령능력, 말뿐인가? 성령충만의 방법"(요15:7~8, 엡5:18)

*내일: 크리스찬 소니아 목사 (루마니아 호프교회)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향한 믿음"(합 3:17-18)

김희권 목사 (송실대)

"고통과 탄식 안에서 하나 된 피조물 공동체" (롬 8:18-27)

3. 복음의 서진 특새 참여

금일 특새는 유럽의 13개국, 120개 개척교회의 200여명 성도들과 세계 각국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특새기간 주차안내

교회 주차장, 마제스타시티(지하 6-7층), 더바인 웨딩: 토요일만 가능, 8시 30분까지 출차(이후 유료)/ 마제스타시티: 오전 7시 이전 출차 (이후 유료), 11.14(토) 9시 이전 출차시 무료.

5.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은혜 게시판' 활용

한국교회/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있는 <연합 특새 홈페이지> 링크 [https:// together_revival.sarang.org/index.asp](https://together_revival.sarang.org/index.asp)를 클릭하셔서 은혜게시판(Reflection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성함과 교회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은혜 게시판'을 활용 안내

은혜게시판 1-200번을 작성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남측 1층 안내데스크에서 메탈 스티커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기준으로 게시물을 올려주신 200분께는 '특새 마스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신 은혜 나눔으로 주실 은혜 기대하자

은혜게시판 On

중국_ZHANG SHANLONG

저는 중국 광둥성에 사는 자매입니다. 올해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비새, 주일예배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새벽예배 후집회 찬양 속에서 주님의 위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저희에게 이렇게 사랑의 교회를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정현 목사님과 강사님들께 7배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말레이시아_윤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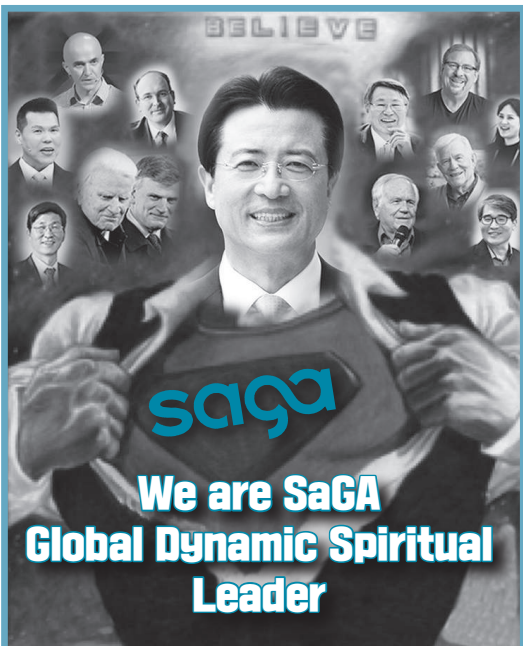
한국을 갈 수도, 한국 가족들이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_김동휘

필리핀 바기오 김동휘 선교사입니다. 팬데믹 이후 사역지에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번 제18차 특별새벽부흥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들으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길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교회 특새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필리핀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대한민국_김차순

1973년 여고 2학년 때 참석했던 여의도 광장에서 만났던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 현장의 기름부음이 있었는데, 오늘 특새에 영적 전투의 거룩한 병기가 된 기름부음의 시간이었습니다. 특새의 의미에 생생한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둘째날



아름답고 놀라운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운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이름 예수